

종합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24일 이전 승인

나주 혁신도시 조성 '본 궤도'

15개기관 승인 모두 마쳐...청사 설계·부지매입 등 탄력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방 이전 계획이 24일 최종 승인된다. 이로써 혁신도시로 옮겨올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승인이 완료돼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산업진흥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을 포함해 이날 이전 승인이 완료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전 인원은 400여명,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및 부지 매입 등 본격적인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관련된 기업·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을 홍보하는 등 조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공옥진 여사 창무극 道 무형문화재 됐다

공옥진(77) 여사의 1인 창무극이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전남도는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 옥진 여사의 1인 창무극을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무형문화재 명칭은 '판소리 1인 창무극 심청가'로, 공 옥진의 1인 창무극을 전통 판소리에 기반을 두고 변용된 형태로 판단하고 공 옥진의 주 연행(演行) 중 곡의 소리를 학습했고 어려서부터 창극 활동을 하면서 판소리의 음악적인 측면과 '아리리', '발림' 등을 극적으로 발전시켜 문화 변용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전남도 문화재위원회는 공 옥사가 판소리 명창 가계를 타고 태어나 성원목·김연수·임방울 등 명창들에게 소리를 학습했고 어려서부터 창극 활동을 하면서 판소리의 음악적인 측면과 '아리리', '발림' 등을 극적으로 발전시켜 문화 변용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1인 창무극에서 독보적인 경지에 이르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점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30일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 옥사는 뇌졸중으로 12년째 병상에서 투병 중이며, 제자 1명을 두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승객이 뽑은 '올해의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1위

아시아나항공이 승객투표로 선정한 '올해의 항공사' 1위를 뽑혔다고 선정 기관인 영국 컨설팅업체 스카이트렉스가 21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작년 7월~올해 4월 세계 100여개국에서 1790만명 이상의 승객이 참여한 투표로 이뤄졌다.

“승객의 선택”이라는 이 상의 슬로건은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엄격한 비평가들인 승객들을 만족시키는 데 성공했음을 잘 보여준다”고 스카이트렉스는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싱가포르 항공, 카타르 항공, 케세이 퍼시픽, 에어 뉴질랜드가 2~5위에 올랐다. 또 에티하드 항공, 콰타르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타이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이 각각 6~10위를 기록했다. /연필뉴스

여야 후반기 원구성 내달 8일 완료키로

여야는 6월 임시국회 기간인 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18대 국회 후반기의 원구성을 완료하기로 21일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북측 법요식에서 만나 내달 8일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지방 몫의 국회 의장단 내정 및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작업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뉴스



21일 '광주 시민의 날' 행사가 열린 상무 시민공원에 시민들이 깃발을 높이 들고 입장하고 있다.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1주년 기념식'이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 2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 기념 '광주시민의 날' 화합한마당

'광주 시민의 날' 행사가 21일 오전 시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렸다. 광주 시민의 날은 직할시로 승격된 날을 기념해 매년 11월1일 열려왔으나, 올해부터는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전남도청을 장악한 21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열리게 됐다.

명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제2부 2015하계U대회 유치 1주년 기념식은 경과 보고와 기념사, 축하 및 성공개최 영상매시지, 시민운동 선동 및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펼쳐졌다. 영상 메시지는 조지 길리안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량 한양대 총장, 대학생, 시민들이 2015광주하계U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축하하는

광주·전남 부재자투표 대상자 8만 4811명

27~28일 이틀간 투표

광주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 106만5148명의 2.6%에 해당하며, 전남은 150만5506명의 3.8%에 해당한다. 유행별로는 부재자 투표소 투표대상은 6만936명(광주 2만4850명·전남 4만4513명), 거소 투표대상은 1만5448명(광주 2988명·전남 1만2460명)이다. 부재자투표 대상자 가운데는 군인과 경찰

농악놀이·고싸움놀이 등 다채 U대회 유치기념 행사도 함께 열려

내용으로 꾸며졌다. 이어 부대행사로 시민화합한마당이 펼쳐졌다. 체육행사는 축구, 박터트리기, 단체 줄넘기,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생활체조 및 밸리댄스 경연대회 등으로 진행됐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의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이 날을 성공개최의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공무원이 4만31명으로 전체의 48%에 달했고, 다음은 일반인 3만1600명, 선거종사자 1만792명 등이었다. 부재자투표소 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투표용지에 불лен 등으로 기표한 후 선거 당일인 6월2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해야 한다. 선관위는 부재자투표 용지를 오는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최경민기자 cki@

시설

전남선관위 '4대강 제재 재검토' 이유있다

전남도선관위가 '4대강 살리기와 무상급식을 쟁점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4대강과 무상급식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오히려 지방선거 과정에서 활발한 논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검증받는 게正道(正道)다. 전남도선관위도 "4대강 및 무상급식의 찬반 논의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의미와 역할과 조화되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 도진 공직자 '선거관 출서기'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전·현직 공직자들의 출서기가 도를 넘어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해 경찰의 내사를 받게 하려는 광주 서구에서는 공무원들이 당원 가입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여 사법처리되거나 무더기 징계처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치유되기에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소속 공무원 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8%가 출서기 제안을 받았거나, 출 서기를 본적이 있다고 답해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있어 난감한 입장이라고 한다. 이들의 출 대기는 전직의 경우 한자리를 얻겠다는 것이고 현직은 보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 모양이니 딱한 노릇이다. 강 후보 캠프 인사들 역시 "강 후보가 당선되면 산하기관장으로 누가 가게 될 것이다" "경제부시장에 누구를 중용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다녔다니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산하단체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다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해야 하는 자라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일용 강군에 후보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철저한 캠프 관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에 당선된다면 해당 인사들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줄을 대는 인사라면 자질이 없다는 얘기가. 귀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한미, 대북 감시태세 '워치콘' 격상 검토

해군도 서해 경계 '최고수준'으로

한미 군당국은 21일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벼랑끝 전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는 북한이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워치콘'을 격상했다. 한편 해군도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경계태세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연필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Includes an illustration of a person sitting at a desk with a lamp, and text: '햇소리 말고, 정치나 잘 하세요'.

인공 유전자 주입한 '인공생명체' 탄생. 美 연구팀 세계 최초 성공. 이를 '인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한 인공 염색체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인공 세포를 만드는데 4가지 화학물질과 합성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 벤터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박테리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를 만들어내고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하며 더 효과적인 백신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6882km² 1년 더 묶는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과 광주 등 전국 그린벨트 등 6882.91km를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